

‘광양 랜드마크’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7월 준공



광양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조감도

사업비 180억 투입·공정률 35%...하반기 개장 목표 남해안 관광 벨트 핵심거점...“광양시민 새 자부심”

광양시를 대표할 세계적 수준의 체험형 랜드마크가 오는 7월 시민과 관광객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5일 광양시에 따르면 구봉산 정상에 추진 중인 ‘광양 구봉산 명소화(체험형 조형물) 사업’이 현재 공정률 35%를 보이고 있다. 시는 5월 중 조형물 본체 설치를 완료하고, 7월 말까지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를 마무리한 뒤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180억원이 투입되는 체험형 조형물은 폭 13~21m, 높이 23.5m, 램프 길이 300m에 이르는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은빛 금속 소재가 나선형으로 부드럽게 상승하며 층층이 겹치는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이다. 관람객들은 총길이 300m의 나선형 램프를 따라 정상에 오르며,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램프를 걷는 동안 발아래로는 광양만의 푸른 바다와 이순

신대교, 역동적인 산업 단지의 야경이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져 압도적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광양시의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포스코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는 대규모 지역 상생 프로젝트다. 2022년 8월 포스코의 ‘광양 명소화 프로젝트’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광양시와 시의회, 포스코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과 시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2024년 6월 최종 작품 디자인을 선정하는 등 철저한 검증과 시민 의견 반영 과정을 밟아왔다. 시는 조형물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함

게 고려해 2024년 하반기 진입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최적의 경로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무장애 동선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은 준공 이후 광양의 새로운 도시 상징물로 자리매김하며, 남해안 관광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은 오는 7월 완공과 8월 시운전을 마치고 나면 광양시민의 새로운 자부심이자, 매년 100만명의 발길을 이끄는 남해안 관광 벨트의 핵심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inj@gwangnam.co.kr

구례, 전남체전 앞두고 청결한 외식환경 조성 일반음식점 위생·친절 교육 실시...원산지 표시 방법 등 안내

구례군은 최근 구례점심아트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대상으로 위생·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구례군지부 주관으로 열렸으며, 일반음식점 영업주 300여명이 참석했다. 군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및 위생등급제 추진사항을 안내하고, 덜어 먹기·남은 음식 재사용하지 않기·나트륨 절감 건강식단 실천하기·어린이 식생활 등 음식 문화 개선 실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주 준수사항과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고객 응

대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을 병행해 외식업 전반의 위생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중점을 뒀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반복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영업주의 책임 의식도 높였다. 구례군 관계자는 “2026년 전남체육대회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청결한 외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선수단이 구례의 맛과 따뜻한 서비스를 경험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inj@gwangnam.co.kr



구례군은 최근 구례점심아트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를 대상으로 위생·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구례군

곡성, 원예·유통 25개 사업에 36억 투입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등 추진...생산비 절감 기대

곡성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어울마당에서 원예·유통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2026년 원예·유통분과위원회 2차 심의회’를 개최했다. 군은 이번 심의회를 통해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원예용 관정 지원사업, 과수 생산기반 구축 등 총 25개 사업을 심의했으며, 총사업비 36억원 규모의 사업을 개별 농가의 작목반·단체를 포함해 397건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농작물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질적인 생산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원예시설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은 노후하우스 시설 개선과 하우스 신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원예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동 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사업은 폐비닐 발생을 줄이고 수거·처리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어 환경 보호와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곡성=김유변 기자 hnews1@gwangnam.co.kr

보성, 합계출산율 1.32명...3년 만에 반등

생활인구 25만명 돌파...지역 혁신 정책 발굴 성과 인구 대응 조직 구축...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보성군이 뚜렷한 V자 반등을 그리며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보성군은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 통계’에서 합계출산율 1.32명을 기록해 전국 7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2022년 0.79명에서 3년 만에 이뤄낸 상승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던 출산 지표가 반등세로 전환되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생아 수 역시 2022년 81명에서 2025년 124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인구 감소율 또한 2021년 -2.7%에서 2025년 -0.51%까지 개선돼 인구 구조가 급격한 감소 국면에서 벗어나 안정화 단계로 전환됐다. 인구 이동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군은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380명 많은 순진입을 기록했다. 이는 인구 여건 개선에 따른 실질적인 인구 유입이라는 결과로 분석된다.

생활 인구 기반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통계데이터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체류 인구는 25만 명을 넘어 주민등록 인구의 약 6배 규모를 형성했다. 외국인 인구는 2022년 473명에서 2025년 1504명으로 증가해 지역 산업의 생산가능 인구 확충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출산·청년·정주 정책을 연계한 인구 전략에 있다. 군은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 확대(2023년), 출생기본수당 신설(2025년),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 출산 축하 물품 지급 등 생애 초기 지원을 강화했다. 또 청년 창업 프로젝트, 기업 승계

지원, 청년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정주 기반을 구축했다. 정책 추진 체계도 조직 중심으로 개편했다. 2023년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2025년 청년활력팀 기능을 강화해 인구 대응 전담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거·일자리·생활 서비스 확충 등 정주 환경 조성에 투입하며 생활 인구 유입이 실제 정주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했다. 군 관계자는 “합계출산율 1.32명 달성은 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임을 증명하는 수치”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구 소멸 위기를 희망의 에너지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순천시,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역량 결집 이봉렬 강사 특강...균형발전형 반도체 산업 전략 제시

순천시는 최근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직원 경례 조회에서 ‘수도권 반도체 산업의 한계와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당위성’을 주제로 직원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에는 40년간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활동해 오며 현재 싱가포르 소재 다국적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 중인 이봉렬 강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이봉렬 강사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동향, 수도권 집종의 한계와 문제점,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분산 배치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전남 동부권의 유치 가능성과 RE100 반도체 국가산단의 의미를 짚었다. 특히 수도권 반도체 산업 전례 이슈로 논란이 되는 현시점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해 RE100 실현이 가능한 호남권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분산 배치하자는 주장이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시는 직원의 이해도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는 전남 동부권의 산업 대전환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여수세계섬박람회장 실외정원 조성 본격화

역새·바위·계절 꽃 중심 섬 경관 반영 정원 구현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장 내 힐링 공간 조성 및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실외정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돌산읍 우두리 1183번지 일원에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되며,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단순 녹지 공간을 넘어 ‘여수의 섬’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을 정원에 투영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산림청의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지원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정원 인프라인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핵심 키워드로 절제된 공간구



성, 중심 수목, 바람의 흐름 등 총 5가지 지를 선정했다. 정상부에는 뽕나무를 중심으로 식재하고 주변에는 섬 지형을 형상화한 석가산과 초화류들로 배치해 절제된 미가 느껴지는 정원을 구현할 방침이다. 또 관람객이 중심 공간까지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나선형 산책길과 여수 바다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을 설치해 섬에 직접 걸어가는 느낌을 주며 섬박람회 정제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장흥, 해양환경 보전 강화 쓰레기 수거체계 본격 가동

장흥군이 청정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취약해안 관리 강화에 나섰다. 군은 청정해역 갯벌생태 산업특구의 위상에 걸맞은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바다로부터 유입되는 부유·침적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해 어업 기반을 보호하고, 해양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일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5일부터 주요 항·포구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상시 정화활동과 폐기물 처리 용역을 운영하며, 발생 즉시 대응이 가능한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단순 수거를 넘어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이 결합된 상시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